

When sense, liturgy, and story meet children's spirituality*

Kum Hee Yang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ain insight into the alternative possibility of Christian children's education overcoming the current church school paradigm namely schooling system by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and the direction of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is paper is a review of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and ways to embody those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consists of two parts: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and the search for ways to embody those characteristics. First,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is a "formative" model that aims to form children's spirituality based on children's spirituality research that views children as 'spiritual beings.' This model specifically has three core orientations: 'experience', 'meeting God', and 'immersion'. In other words,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pursues 'experience rather than knowledge', pursues the experience of meeting God in the second person rather than teaching third-person knowledge about God, and values the spiritual moment of immersion more than anything else. Second, it searches for specific ways and methods through which those three core goals could be implemented, and found that they were 'sense,' 'liturgy,' and 'story.' The sense becomes a path that evokes experience, the liturgy becomes a place for 'meeting God,' and 'story' becomes a key path to 'immersion.' And when the three are organically combined with each other, the goals pursued by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can be holistically converged.

Conclusions and Suggestions: Through these considerations, it found that the core values and direction of education are consistently maintained in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from children's understanding to education methods. It also figured out that the direction should be shared not only by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but also by all who pursue holistic faith education: 'what to experience' rather than 'what to teach', 'liturgy' rather than 'teaching', 'story' rather than 'explanation', and 'sensory' experiences rather than 'abstract' knowledge.

Key Words

Children's spirituality, Children spiritual education, Sens, Liturgy, Story

* This work was supported by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Grant.

Received Nov. 26, 2023 Revised Dis. 28, 2023 Accepted Dis 29, 2023

Author : Kum Hee Yang, Professor, Presbyteria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khyang@puts.ac.kr

감각, 예전, 이야기가 어린이영성과 만날 때*

양금희**
(장로회신학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이 논문은 소위 학교식 모델의 대안으로 부상하는 어린이영성교육의 특성과 방향성을 고찰함으로써, 기독교아동교육이 현재의 교회학교식 패러다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가능성에 대한 통찰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본고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어린이영성교육의 특성과 그 특성을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들의 모색이 그것이다. 첫째, 어린이 영성교육은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보는 어린이영성 연구에 기반하여 어린이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에 목표를 둔 “형성적” 모델이다. 이 모델은 특별히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이라는 세 가지의 핵심 지향점을 갖는다. 즉 어린이영성교육은 ‘지식보다는 경험’을 추구하며, 하나님에 대해 3인칭적 지식을 가르치기보다는 2인칭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추구하고, 그 무엇보다 몰입이라는 영성적 순간을 중시하는 교육이다. 둘째, 본고는 그러한 세 가지의 핵심 지향점들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와 방법들을 모색하였는바,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가 그것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감각은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며, 예전은 ‘하나님만남’의 자리가 되고, ‘이야기’는 ‘몰입’에의 핵심적 통로가 된다. 그리고 그 셋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지향점들을 통전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 이상의 고찰을 통해 본고는 어린이영성교육 안에서 어린이 이해로부터 교육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이 수미일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으로부터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 ‘가르침’보다는 ‘예전’, ‘설명’보다는 ‘이야기’, 그리고 ‘추상적’ 지식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성은 단지 어린이영성교육에게만이 아니라 전인적 신앙교육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이 공유해야 할 기독교 아동교육의 방향이라는 통찰을 얻는다.

〈 주제어 〉

어린이영성, 어린이영성교육, 감각, 예전, 이야기

□ 2023년 11월 26일 접수, 2023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3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장로회신학대학교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khyang@puts.ac.kr

I. 들어가는 말

“어린이영성교육”은 1990년대에 시작된 흐름으로서 긴 기독교교육의 역사에 비하면 비교적 젊은 기독교아동교육 모델이다. 이 모델은 “어린이영성(children spirituality)” 연구에서 시작하여 기독교아동교육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어린이영성교육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게 된 것은 그들의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이해, 즉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보는 입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보는 것은, 오랫동안 기독교 아동교육의 전제가 되어왔던 인지발달심리학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인지발달심리학이 어린이를 인지적 미성숙으로 인해 아직은 종교적 단계에 이르지 못한 “전종교적(prereligious)” 단계로 이해한다면(Goldman, 1964, 3), 어린이영성은 어린이가 인지적으로 미성숙하다고 하여 이들에게 종교적 경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들은 어린이를 생득적 영성을 가진 ‘영적 존재’라고 천명한다. 이와 같은 어린이영성의 관점은 어린이영성교육의 방향에도 영향을 미쳐, 기존의 ‘학교식 교육’ 혹은 지식중심의 ‘정보적 모델’이 아닌, ‘형성적 모델’, ‘경험적 모델’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학교식 교육의 대안적 모델의 하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먼저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핵심적 지향점들을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의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그 지향점들이 구현될 수 있는 통로들을 특별히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를 중심으로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들이 어린이영성교육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어린이영성교육의 지향점들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무엇보다 이들이 함께 만나 서로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상호작용하게 되는지를 살펴보려 한다.

II. 어린이 영성과 영성교육

“어린이영성(Children Spirituality)”은 1990년대 이후 유럽과 북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주제이다(Ratclif, 2008, 21-42). “어린이영성”은 로빈슨(Robinson, 1983), 헤이와 나이(Hay & Nye, 2006), 코울스(Coles, 1992) 등에 의해 학문적 연구 주제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베리만(Berryman, 1991), 스투어트(Stewart, 2000), 유스트(Yust, 2004), 레트클리프(Ratclif, 2008), 백위드(Beckwith, 2009) 등에 의해 “어린이 영성교육”에로까지 확대되어 오늘날의 기독교 아동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았다. “어린이 영성”은 학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바, 유럽에서는 2000년 영국에서 “국제 어린이 영성 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ildren’s Spirituality)”가 시작되어 오늘날까지 매 해

열리고 있고, 미국에서는 2003년 이후 매 3년마다 “어린이영성 학회-기독교적 관점(The Children’s Spirituality Conference – Christian Perspectives)”가 열리고 있다(Roehlkepartain, 2004).

1. 영적 존재로서의 어린이 이해

어린이영성은 다양한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에 의해 공통적으로 공유되는 요소들이 있다. 그것은 먼저 이들 모두 “어린이는 영적 존재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린이 영성연구를 최초로 시작했던 로빈슨(1983, 11)의 연구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알리스터 하디 연구소(Sir Alister Hardy Institute)의 종교체험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면서 성인 4000명에게 “자신의 삶이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느꼈던 경험”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설문 내용에 어릴 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600여명의 응답자가 이미 아주 어릴 때부터 초월적 힘을 느꼈다는 응답을 하는 것을 보고, 로빈슨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유아기에 종교적 체험을 하고 있고, 그 체험은 성인이 될 때까지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는 이 연구를 바탕으로 어릴 때의 종교적 체험을 기억하는 성인들의 인터뷰를 모아서 『원초적 비전(The Original Vision)』이라는 책을 출판하였는바, 이 책은 어린이 영성 연구가 활발하게 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로빈슨이 성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릴 때 했던 영적 경험에 대해 연구했다면, 코울즈(1992)는 직접 여러 문화권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서 어린이들이 문화와 종교를 막론하고 영적 탐색을 하는 영적 여정 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1992, 279)는 물론 어린이가 속한 종교적 환경이 그들에게 신에 대한 이해 및 구체적 영성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사실은 초월적 존재에 대한 관심과 물음이 있는 “영적 삶(spiritual life)”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점을 발견하였다. 코울즈는 이와 같은 현상은 종교적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은 어린이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 또한 발견하면서, 이것으로부터 어린이영성이 반드시 ‘종교’와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어린이영성 연구가들이 이처럼 어린이영성을 종교로부터 독립된 요소로 보는 것은 그들이 그것을 일종의 생득적 요소, 혹은 생물학적 요소로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Hay & Nye, 1998, 63). 다시 말하여 영성은 종교적 환경과 무관하게 이미 어린이 내부에서부터 출발하는 일종의 생물학적 요소요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헤이와 나이는 어린이 안에 생득적 요소로 존재하는 영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일반적 영성의 요소들로부터 일종의 ‘지형도(geogra

phy)’를 만들고, 그와 같은 지형이 어린이 안에도 존재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들(1998, 64)은 종교학자와 신학자, 영성가들의 이론과 체험을 바탕으로 영성의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각성감(awareness sensing)”, “신비감(mystery sensing)”, “가치감(value sensing)”으로 정리하고 각 카테고리 안에서의 세부적 요소들을 기반으로 영적 지형도를 만들었다. 이들에 의하면 “각성감”이란 자각하며 집중하는 감각을 의미하는바, ‘여기와 지금(here-and-now)’이라고 하는 순간적 의식과 ‘조율(tuning)’, ‘몰입(flow)’, ‘집중(focusing)’과 같은 감각들이라고 할 수 있다. “신비감”은 ‘감탄과 경이’, 그리고 ‘상상력’을 포함하는 감각이고, “가치감”은 ‘기쁨과 절망’, ‘궁극적 선’에 대한 느낌, ‘의미’와 같은 감각들이다. 헤이와 나이는 이와 같은 영적 감각들은 성인적 영성개념에서 발견되는 요소들이지만, 이들이 어린이에게서도 발견될 뿐 만 아니라, 오히려 성인에게서 보다 강력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어린이 안의 생득적 요소로서 영성을 강력하게 시사하였다.

어린이영성을 생득적 요소로 보는 순간 어린이는 “영적 존재”가 된다. 모든 어린이들이 영성을 생득적으로 갖고 태어난다는 것은 어린이들이 근본적으로 영적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영성은 오랫동안 어린이 이해 및 기독교 아동교육을 이끌어 왔던 발달심리학적 전제들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한다. 종교체험에 관한 연구로 어린이 영성연구의 촉매역할을 하였던 로빈슨(1983, 8)의 경우 피아제 및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을 근거로 하는 골드만의 종교적 사고 발달을 어린이 이해의 기초로 삼아 어린이의 경우 아직 종교이전(pre-religious) 단계에 속한다고 보았었다. 골드만의 이해에 의하면 신학적으로 적절한 신개념을 형성하거나, 성경에 나타나는 이야기들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추상적 종교기” 단계인 청소년에 도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어린이는 아직 전종교적 단계로서, 영성적 경험이 불가능하다고 보았었다.

그러나 로빈슨(1983, 11)은 종교체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어린이들이 인지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이 곧 그들이 영적 체험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4000명 중 600명)이 유아기 시절에 했던 특별한 영적 체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밝혀냈다. 이와 같은 그의 발견은 어린이들이 인지발달적으로 미숙해도 종교적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 환언하면, 어린이의 종교적 체험이 인지발달과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한다. 로빈슨(1983, 9)은 오히려 피아제의 인지발달은 과학적 사고이자 성인 중심적 사고이며, 그와 같은 틀로 어린이의 영성과 종교체험을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것은 헤이와 나이(1998,)가 영성을 지적능력으로가 아니라 “감각(sensing)”으로 보고 있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다. 이들은 영성을 지식이나 인지능력이 아니라, ‘각성감’, ‘신비감’, ‘가치감’과 같은 감각으로 보면서, 인간이 세상(하나님, 이웃, 사물)과 맺는 “관계적 자각(relational awareness)”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그 같은 감각은 성인에게서 뿐 만

아니라 어린이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어린이 시기를 결코 ‘전종교적(pre-religious)’ 시기, 혹은 전 ‘영성적(pre-spiritual)’ 시기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 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어린이 영성연구가들의 다양한 연구들은 전체적으로 ‘영적 존재로서의 어린이’를 증명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2. 형성적 어린이영성교육 패러다임

어린이영성이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이해하면서 어린이 이해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면, 어린이영성교육은 그러한 어린이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기독교 아동교육의 새로운 차원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 어린이영성교육은 기존의 기독교 아동교육이 해왔던 교회학교식 교육, 즉 스쿨링(schooling) 형태와는 다른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였는바, 이것은 그들이 어린이영성을 인지발달과 무관하게 보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즉 어린이영성교육은 성경이나 기독교전통을 지식의 형태로 전수하여 습득하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어린이가 생득적으로 가지는 영성에 양분을 주고 성장하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따라서 어린이영성교육은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이 아니라 영성을 “형성”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백워드(2009, 18)는 이러한 맥락에서 어린이영성교육은 “정보적(informational) 모델”이 아닌 “형성적(formational) 모델”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녀는 ‘정보적 모델’이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하면서, 이것은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어린이들의 신앙을 성장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다고 하였다. 백워드가 말하는 ‘정보적 모델’은 오랫동안 서구와 한국의 교회학교를 지배해온 “학교”라는 은유를 기반으로 하는 “학교식 모델”과 흡사하다. 즉 학교식 모델은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서 교과서를 가지고 지식을 전수하고 전수받는 ‘학교’라는 은유를 기반으로 지식전달 중심의 신앙교육을 수행하는 모델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론 오늘날의 교회학교가 세워지고 유지되도록 한 여러 장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식중심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웨스터호프(Westerhoff III, 1983, 51)는 지식전달 중심의 학교식 모델이 기독교전통에 관해서(about) 가르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전통을 내면화하여 전인적이고 통전적 신앙을 형성하도록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학교식모델과는 달리 어린이 영성교육은 어린이 내면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즉 생득적으로 주어진 영성을 일깨우고 양분을 주고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자라나도록 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형성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이의 영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형성 혹은 재형성하는 일이다. 영성은 인간 ‘존재의 핵’이고(Roehlkepartain, 2004, 122), 따라서 영성을 형성한다는 것은 존재 자체

를 형성 혹은 재형성하는 일이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더 알아가거나, 어떤 윤리적 행동을 하게 되는 변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재중심화 되면서, 그를 통해 자아 전체가 변형되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영성교육은 지식을 제공하는 정보적 모델이 아니라, 그 지식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 자체를 형성하고, 자아를 재형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1) 경험

그렇다면 자아를 형성하거나 재형성하는 일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린이영성교육은 그것이 일차적으로 “경험”으로부터 온다고 본다. 어린이는 지식으로 자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경험을 통해서 자아를 형성한다. 몬테소리(Montessori, 1971, 73)는 어린이의 자아는 처음부터 완성된 것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어린이의 자아 상태를 “네블레(nabulae, 성운)”라고 하였는바, 이것은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별이지만 점차로 형성되는 별과 같다고 하였다.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경험을 통해 어린이의 내재적 자아인 네블레는 구체적 형태로 발전된다는 것이다. 특별히 그녀는 네블레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의 어린이에게는 특별한 내적 능력이 있는바, 이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을 빨아들이는 “흡수정신(absorbierendes Geist)”이라고 하였다. 이 흡수정신을 통해 어린이는 환경과의 경험을 흡수하여, “므네메(muneme, 기억소)”라는 형태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 기억소가 어린이의 무의식의 기초가 될 뿐 만 아니라 자아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다. 몬테소리의 이러한 어린이 이해는 어린이의 자아형성에서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경험이 결정적 요소가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린이 뿐 만 아니라 성인의 자아형성에 있어서도 ‘경험’은 결정적 요소이다. 우리의 존재가 형성되거나 변형된 기억을 더듬어 보자.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가. 큰 슬픔이나 아픔을 당한 경험, 성취와 실패의 경험, 하나님을 만난 경험, 친구와 주변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이별 등의 경험은 우리의 자아를 변화시킨다. 그 경험 이전과 이후의 자아가 달라지고 존재가 달라진다.

따라서 ‘경험’은 형성적 모델로서의 어린이영성교육의 핵심적 개념이다. ‘학교식 모델’이 기독교의 전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모델이라면, 어린이영성교육은 기독교 전통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어린이 내면의 영성이 싹트고, 일깨워지고 성숙하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춘다. 성경의 이야기를 정보처럼 제공해주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그 이야기를 나에게서 일어난 것처럼 경험하고,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한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을 때 어린이의 영성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어린이영성교육은 성경의 이야기와 기

독교의 전통은 지식의 형태로써 제공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이들에 의해서 그것이 직접 경험될 때에만 그들의 내면에 영향을 미치고, 신앙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어린이영성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의 물음보다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의 물음을 중시한다. 따라서 어린이영성교육은 어린이의 경험이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이영성 연구는 어린이 내면의 ‘영성’을 ‘감각’과 연결된 것으로 이해하면서, 감각적 경험이야말로 영성을 자극하고 형성하는 일차적 통로로 이해한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영성교육은 지식전수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앎(knowing)보다는 느낌(sensing)을 추구하는 교육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을 알게 해 줄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느끼게 해 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다. 왜냐하면 경험은 자아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재구성하기 때문이다.

2) 하나님 만남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물어야 할 것은 ‘어린이영성교육은 어떠한 경험을 추구하는가?’이다. 어린이영성교육은 물론 어린이 내면의 영성을 일깨우고 자극하는 “영성적”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 영성적 경험은 일차적으로 초월적 존재(하나님)를 만나는 경험을 의미한다. 어린이 영성연구가들(Roehlkepartain, King, Wagener, Benson, 2006, 5-6)은 영성을 “초월적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초월을 이룰 수 있는 인간 내면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이러한 정의 안에서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초월적 존재”라는 단어이다. 즉 영성은 초월적 존재(하나님)와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 그와 만날 수 있는 인간 내면의 자리로서, 바로 이 개념으로 인해서 영성은 윤리나 철학으로부터 구분된다(McGrath, 1999, 2; O’Leary, 2009, 9). 즉 영성의 근본적 특징은 초월적 존재와의 만남, 그와의 관계성 안에 있음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학자 루돌프 오토(Otto, 1979, 6-7)는 종교적 체험, 혹은 영적 순간을 “누미노스”라고 칭하였는데, 이것은 라틴어 “누멘(numens)”에서 온 용어로서, 신 혹은 신들의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오토는 그것을 독일어 누미노스(numinos)라고 칭하면서 “신적 존재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감정과 반응의 순간”을 지칭하는 단어로 탄생시켰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그가 누미노스의 순간을 “이성이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감정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고, 이 감정은 놀라운 존재 앞에서의 “두려움”과 “황홀감”이라고 한 것이다. 즉 영성적 경험의 순간은 이성보다는 감성이고, 특별히 두려움과 황홀감의 감정이 경험되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가들리 플레이(Godly Play)라는 어린이영성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는 베리만(2011, 215)은 종교적 경험과 관련한 언어는 “와우(wow)”의 언어가 되어야 한

다고 하였다. 종교적 순간은 두려움과 경이, 그리고 감탄의 순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종교적 경험이 일어나는 순간을 표현하는 언어가 따로 있는데, 그것은 ‘과학의 언어(is의 언어)’, ‘법의 언어(must;의 언어)’ 그리고 ‘윤리의 언어(‘ought to’의 언어)’와 혼돈되거나 그것에 의해 대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즉 종교적 언어를 가장 종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감탄의 언어로서, 그것은 거룩하고 초월적 존재 앞에서의 신비함과 경이로움, 감탄, 놀라움 그리고 두려움에 대한 경험을 표현하는 것이기에 “와우”라고 하는 감탄의 언어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어린이 영성교육은 법의 언어, 윤리의 언어 과학의 언어가 아닌 “와우의 언어”가 사용되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감탄과 경이(awe and wonder)”의 감각적 경험이 일어나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어린이영성교육은 언어 자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이고, 교육의 언어가 달라야한다는 것은 결국 교육의 방향과 형태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어린이영성교육은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설명의 형태, 즉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육(teaching about God)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관한 3인칭적 지식을 제공하는 형태가 아니라,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나고 경험하도록 하는 교육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한 윤리적 가르침이나 율법적 명령의 형태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감동 없는 강요, 감탄 없는 명령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령의 언어가 감동의 언어인 것처럼, 어린이 영성교육은 어린이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되어야 하고, 그 결과 “와우”라고 외치게 되는 감동과 감탄과 경이의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어린이영성교육이 하나님만남의 경험을 중시한다는 것은 접근이 달라야 하고, 언어가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몰입

어린이영성교육이 중시하는 하나님만남의 순간, 감탄과 경이의 순간은 일상적 순간과는 구별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은 어린이들이 특별하게 몰입하고 각성하게 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헤이와 나이(2006, 65f)는 영성적 순간을 “각성(awareness)”의 순간이라고 하였다. 각성이란 주의(attention)를 기울이는 순간이고, 이것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일상적인 시간과는 구별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그들은 ‘각성’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연속적 시간의 개념, 즉 “선적 모드(line-mode)”이기보다는 ‘순간모드’ 혹은 “점모드(point-mode)”라고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2006, 66) 각성의 순간의 특징 중 하나를 “여기와 지금(here-and-now)”이라고도 칭하였는바, ‘여기와 지금’이란 현재 그리고 여기에 생생하게 몰입함으로써, 과거와 미래를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집중적이면서도 직접적인 순간을 말한다. 우리가 어린이들이 몰입할 때 흔히 발견하게 되는 것처럼, 이 순간은 고도의 집중도(intensity)

와 고도의 직접성(immediacy)을 가진 각성의 순간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칙센트미하일리(Csikszentmihalyi, 1975)는 어린이들이 고도의 집중도와 직접성을 나타내는 각성의 순간을 “몰입(flow)”이라고 칭하였는바, 몰입의 순간에 어린이들이 하나의 것에 집중하면서 집중도가 높아지면 다른 것들에 대해 감각기관 자체가 차단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그는 이들이 몰입의 순간에 다른 사람의 말이나 시끄러운 소음, 시간의 경과, 배고픔과 피곤함, 육체적 고통 등조차도 의식하지 못할 만큼 하나의 것에 집중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Hay & Nye, 2006, 69).

몬테소리(1996, 15) 또한 어린이에게 나타나는 “집중화(concentration)” 현상을 관찰하였는바, 집중화란 어린이가 자유롭게 존중받는 상황에서 스스로 어느 하나의 것에 반복적으로 몰입하는 현상을 말한다. 이 집중화는 어린이가 신체적 활동을 하는 동안 정신적으로도 몰입하는 현상으로서 신체와 정신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집중화를 통해 어린이의 의식은 신체와 통합되고, 자신의 힘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과 하나가 된다. 몬테소리(1996, 20, 24)는 집중화를 통해 어린이의 내면이 형성되고 또한 사물과의 관계를 인식하게 되며 내적 에너지가 활성화 된다고 하였다. 이 같은 작용을 통해서 집중화는 어린이의 인격이 재조직하고 재구조화하는 “정상화(Normalisierung)”가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일련의 어린이영성 교육가들, 즉 “선한목자카테키시스(Goodshepherd Catechysis)”의 카발레티(Cavalletti, 1979) “팔로잉 지저스(Following Jesus)”의 스투어트(2000), 그리고 “가톨릭플레이(Godly Play)”의 베리만(1991) 등이 모두 몬테소리교육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모두 특별히 감각적 교구를 통해 성경이야기를 제시함으로써 어린이들을 집중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이와 같은 예들은 모두 어린이 영성교육이 특별히 몰입과 집중에 초점을 맞추므로서 어린이들 내면의 영성을 형성하는 것을 추구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어린이 영성교육은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몰입과 집중이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는 길을 모색한다.

위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어린이영성교육은 단순히 하나의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기독교 아동교육의 하나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어린이를 영적 존재로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적 모델이 아닌 “형성적” 모델의 아동교육을 추구한다. 형성적 모델로서의 어린이영성교육은 “경험”과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을 세 개의 핵심 축으로 전개되는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

III.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

위에서 서술한 바 있는 어린이영성교육의 세 중심축들, 즉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은 어린이영성교육에서 어떠한 통로를 통해 구현될 수 있을 것인가? 어떠한 방법들이 그들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인가? 본고는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야말로 그러한 특성들이 수렴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라고 본다. 이것은 이미 여러 어린이영성교육의 모델들에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별히 “팔로잉 지저스(Following Jesus)”, “가들리 플레이(Godly Play)” “센싱더스토리(Sensing The Story)” 같은 몬테소리학파들의 어린이영성교육 프로그램들을 볼 때, 공통적으로 이 세 가지가 핵심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Stewart, 2000; Berryman, 2011; 양금희, 2014). 그러면 왜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는 어린이 영성교육의 핵을 이루는지, 그것이 어떻게 어린이 영성교육과 관련되는지를 앞에서 살펴본 어린이 영성교육의 특성인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과의 관련성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1. 감각과 경험

위에서 살펴본대로 어린이영성교육의 핵심 중 하나는 “경험”이다. 어린이영성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교육이다. 경험이라는 측면에서 “감각”은 가장 기본적 요소이다. 모든 경험은 감각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어린이영성 연구가들은 영성을 ‘감각(sensing)’적 차원에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Hay & Nye, 1998, 63). 따라서 어린이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감각적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즉 어린이 영성을 형성하는 것은 추상적이거나 경험되지 않는 지적 앎을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적인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각’이 우리의 몸의 작용이고, 몸의 작용으로서의 감각은 우리의 앎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오히려 그것은 앎에 선행하여 앎을 이끌어가는 요소이고, 따라서 어린이 시기의 감각적 경험은 모든 형성의 기초가 된다는 것이다.

안토니오 다마지오(Damasio, 1994)는 인간에게 있어서 인지적 현상을 이끌어가는 것은 몸의 감각이라고 하였다. 그(1994, 126)는 저서 『데카르트의 오류』에서 데카르트의 이원론, 특별히 몸과 사고를 분리하는 ‘심신이원론’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사고와 감각기관으로서의 몸은 서로 뗄 수 없다고 하였다. 즉 우리의 사고(마음)는 우리의 몸과 연결되어 함께 작용하는 일원론적 구조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는 몸이 단순히 정신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일차적 내용이자 재료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저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그것을 기반으로 인지적 판단이 일어난다는 것을 “감정”과 “느낌”의 관계로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우리가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듣게 되면, 생각을 하기 전에 먼저 가슴이 덜컥 내려

앞고, 피부가 창백해지며, 얼굴이 이그러지면서 슬픈 표정이 된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은 이미 그 사건에 대해 슬픔으로 반응한다는 것이다. 그(1994, 131)는 이처럼 우리의 몸이 반응하여 나타내는 것을 “감정(emotion)”이라고 하고, 몸의 반응을 의식하면서 슬프다고 느끼는 것을 “느낌(feeling)”이라고 칭하였다. 즉 몸의 반응이 먼저이고, 그 반응에 유도된 인식이 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은 몸이 사고의 과정에 먼저 참여하고, 신체의 변화에 의해 유도된 인지과정이 그의 후속적 작용으로 온다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메를로 폰티(Merleau-Ponty, 2019, 563)가 일찍이 몸이 사고에 앞서서 인식을 이끌어가는 인식의 주체라고 천명했던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몸이 세계와 의식의 중간 지대에서, 세계와 가장 직접적으로 만나면서, 가장 먼저 인식하고 반응하는 인식의 주체라고 하였다. 그는 몸이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세계와 같은 질료로 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를 인식하기 때문에 세계의 자극을 직접 받으면서 그것을 몸으로 처리하는 독특한 인식의 작용을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직접적인 몸의 인식은 추상적이고 사변적 인식이 있기 전에 생성되어 추상적 사고에 방향을 제시하는 사고가 된다고 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렌즈(Renz, 1998, 53-65)는 인간이 알아가는 과정에는 ‘숙고적(speculative) 앎’과 ‘감각적(connatural) 앎’이 있는데, 숙고적 앎이 추상적인 사고라면, 감각적 앎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감각을 활용해서 알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그는 어린아에게서는 먼저 ‘감각적’ 앎이 시작되고, 그 이후에 ‘숙고적’ 앎이 온다고 하였다. 이것은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나이나 이름, 학력과 같은 객관적 사실을 몰라도 어머니의 체취와 젖가슴, 손길과 체온 등을 느끼면서 어머니를 누구보다 잘 알게 되는 현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아기가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사람에게 심하게 낯을 가리는 것을 보면 그가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게 된 자신의 어머니를 얼마나 강렬하게 알고 있고, 애착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몸의 감각이야말로 어린아에게 경험을 형성하는 가장 핵심적 기반이라는 것을 나타내 준다.

감각은 어린아에게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핵심적 통로이면서, 동시에 어린이가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방법으로 감각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안으로 나타났을 때를 보면 여기에는 엄청난 감각의 작용들이 있음을 발견한다. 유스트(2004, 8)는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섰을 때, 그는 연기의 냄새에 대한 후각, 불꽃은 떨기나무를 보는 시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청각, 하나님과 말하는 언어, 거룩한 땅의 감촉을 맨발로 느끼는 촉각 등등의 다감각적 경험이 있었음을 말한다. 그러한 다감각적 경험이 그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했고, 그것은 그에게 경이감과 두려움을 갖도록 했을 것이라고 하였

다. 감각은 성인에게서 뿐 만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도 하나님만남을 경험하게 하는 최적의 통로이다. 어린이영성 연구가들은 어린이들이 특별히 ‘감각적 유비(sensorial analogy)’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다고 하였다(Berryman, 2011, 140).

감각은 또한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된다. 영성적 경험은 몰입이고, 어린이에게 몰입은 몸의 감각과 연결되어 있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헤이와 나이(2006, 63)는 영성을 표현해 주는 핵심적 감각이 자각감(awareness sensing)이라고 하였고, 이 자각감은 모두 몸으로 느껴지는 감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는 영성의 순간인 ‘여기와 지금’, ‘조율’, ‘몰입(flow)’, ‘초점맞추기(focusing)’들은 모두 내용상으로 살펴보면 몸의 감각과 떼어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고찰을 통해서 볼 때에 감각은 무엇보다 어린이영성의 핵심요소인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그와 아울러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자리가 된다.

2. 예전과 하나님만남

예전은 어린이 영성교육의 또 하나의 핵심 통로가 된다. 예전은 어린이영성의 핵심개념 중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만남”이 일어나는 핵심적 자리이다. 왜냐하면 예전의 상황은 “하나님 앞(coram Deo)”이라는 문맥을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에 올 때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와 그를 마주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존전’으로 나온다는 말을 쓴다. 이것은 우리가 예전에서 하나님을 2인칭, 즉 ‘당신’으로 부르며 그와 마주하고 관계 맺으려고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배를 위해 특별한 장소로 모이는 것 자체가 이미 그것을 뒷받침한다. 예배를 위해 구별된 장소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이라는 문맥 속에 살지만, 거기로부터 나와 하나님 앞으로 오기 위해서 공간을 이동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 시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을 경청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3인칭으로서가 아니라, 2인칭으로 만나는 장치이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것은 주변으로부터 시선을 차단하고 하나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감는 것이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우리의 사랑의 노래이고, 고백의 노래이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직접적으로 “하나님만남”의 자리가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어린이 영성교육에서는 핵심적인 자리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예전은 또한 단순히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그와 관계 맺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니콜라스 월

터스토르프(Wolterstorff, 2016, 10)는 예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2인칭으로 부르고 하나님께 말걸기를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앎을 형성한다고 하였다. 즉 하나님께 ‘당신’으로서 말걸기를 반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요, ‘당신’으로 부를 수 있는 분, 말 걸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형성된 것을 그(3-4)는 하나님에 대한 “대상 지식(object knowledge)”이라고 칭하면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교리적 지식(dogmatic knowledge)”과 구별된다고 하였다. ‘대상 지식’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객관적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직접 사귀어보면서 알아갈 때 생기는 지식과 같은 종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테브라 딘 머피(Murphy, 2004, 100)는 그 같은 지식을 “송영적 지식(doxological knowledge)”이라고 칭하였다. 그녀는 예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지식이 생기는데, 이것은 학교식(schooling) 교육의 상황에서 배우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구분된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는 찬양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면화할 수 있고, 이렇게 생성되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추상적 지식이 아니라, 실존적 지식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녀(104)는 예배를 통해 형성되는 송영적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아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한다고 하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의 자아에 대한 인식,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적 인식이라고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은 하나님을 2인칭으로 알게 되는 자리일 뿐 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할 것인지를 배우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우리는 예전 속에서 ‘찬양하기’, ‘하나님께 말 걸기’, ‘경청하기’, ‘감사하기’ ‘순종하기’ 와 같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을 배운다. 즉 예전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그와 관계하기를 배우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다. 쿠네오(Cuneo, 2016, 163)는 그렇게 획득되는 하나님과 관련된 “예전적 지식(ritual knowledge)”은 결코 명제적 지식으로는 환원할 수 없는 참여를 통해 형성되는 지식이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점들로부터 우리는 예전이야말로 어린이 영성교육에서 추구하는 초월자(하나님)와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자리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예전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인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예전예의 참여만으로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형성하고, 또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해야하는지를 습득하게 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다.

예전은 또한 그 자체로 “경험”이 불러일으켜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머피(2004, 104)는 예배는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장으로서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몸과 감각 그리고 경험과 관계하는 참여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예배 안에서 생겨나는 지식은 단순히 인지적인 것이 아니다 - 그것은 단순히 지능에 의한 데이터의 습득이 아니다-. 그것은 물질적이고 육체적이다. 그것은 그것을 행함으로써만 알게 될 수 있는 지식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몸으로, 그리고 실제로 행하는(performative) 지식이다.”

예전은 우리의 몸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행하면서 이루어지는 실천이다.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몸의 참여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경청하고,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모든 예전의 행위는 우리의 몸의 참여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찬을 생각해 보자. 성찬은 떡과 잔에 대해 거리를 두고 성찰하는 행위가 아니라, 떡과 잔을 직접 먹고 마심으로 행하는 예전이다. 그래서 테오도르 제닝스(Jennings, 1982, 115)는 예전을 통해 형성되는 우리의 인식을 참여적 인식“이라고 칭하였다. 마치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이 자전거 타기에 대해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타봄으로써만 배울 수 있는 것과 같이, 예전에는 직접 몸으로 참여함으로써 일어나는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있다고 하였다.

예전은 이처럼 몸의 참여를 통한 경험을 가져오고, 이것은 예전이야말로 어린이 영성 형성을 가져오는 통로가 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이는 사변적 지식을 얻기 전에 직접 부딪혀서 얻게 되는 인식(connatural knowledge)으로 세상을 습득하는 시기, 즉 감각적 경험의 시기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그리고 어린이 영성교육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교육이라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예전은 어린이 영성교육이 최적의 통로라고 할 수 있다.

예전은 또한 “몰입”이 일어나는 현장이다. 예전은 “참여”이다. 예전에의 참여란 예전적 환경에 들어가 그의 일부분이 되는 일이다. 찬양을 할 때 우리는 혼자 부르는 것 같지만 회중이 부르는 찬양을 들으며 거기에 나의 찬양을 조율한다. 기도를 할 때 대표기도 하는 사람의 기도를 따라가면서 아멘으로 화답한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전적 환경과 유기적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배의 순간은 예전적 환경에 들어가 몰입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예전적 환경 안에 몰입해 있음, 그 안에 들어가 그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존재의 순간이다. 예배자란 한 번 되면 영원이 획득하는 소유가 아니라, 늘 예배에 참여하여 그의 일부분이 되어가는 존재의 순간이고 이것은 몰입 없이는 불가능한 순간이다.

그렇게 보았을 때, 예전은 놀이와 같다. 후이징가(Huizinga, 1956, 15)는 놀이란 “하고 싶은 것을 외부의 압력 없이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놀이는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안에 목적이 있는 행위이고, 의무적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의무적으로 하는 순간 그것은 놀이가 아니라 일이 된다. 그래서 놀이자는 놀이의 결과를 통해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놀이 자체를 통해 즐거움과 기쁨을

얻는다. 그래서 놀이는 몰입을 가져온다. 놀이에 몰입하는 순간 놀이자는 더 이상 놀이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아니다. 그 순간 놀이자는 놀이에 자신을 기꺼이 내어 맡기고 놀이가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간다. 예전이 이와 같다. 예배에 참여한다는 것은 예배에 몰입하는 것이고, 예전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맡기고 예전이 이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예전은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몰입’이 일어나는 핵심적 장이다.

이상과 같은 고찰에서 우리는 예전이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하나님 만남’, ‘경험’, 그리고 ‘몰입’이 일어나는 최적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3. 이야기와 몰입

이야기는 어린이영성이 추구하는 교육의 방향들을 수렴하는 최적의 자리 중 하나이면서, 무엇보다 어린이영성교육의 핵심개념인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최고의 통로이다. 이야기는 ‘플롯’이 있는 담화의 형태이다.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로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동력이다. 그것은 청중들을 이야기의 세계에 빨려들게 하고, 그것의 전개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하면서 청중들을 이끈다. 이것이 청중들이 이야기를 재미있다고 느끼는 힘이고, 그 힘으로 이야기는 성인과 어린이를 몰입시킨다.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이야기 세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은 물리적으로는 여기에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이야기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머문다(dwelling). 그들은 그 이야기의 세계 안에서 그곳에 등장하는 인물들, 환경들, 사건들이 서로 만나 펼쳐지는 이야기의 전개와 상호작용하면서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이처럼 이야기가 펼쳐놓는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몰입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야기 세계에 들어가 이야기 세계에 참여하는 어린이는 이 세계에서 방해, 소음, 배고픔, 피곤함 등을 전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이야기 세계에 몰입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이야기가 얼마나 강력하게 어린이를 몰입하게 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야기는 더 나아가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동일시를 불러일으키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 작동을 함으로써 청중들의 몰입을 불러일으킨다(Shaw, 1999, 54). 이야기는 과학의 언어나 법의 언어가 아니라,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로써 그것이 마치 나에게서 일어난 것과 같이 느껴지게 한다. 이야기가 불러일으키는 상상력은 어린이를 이야기의 세계 안으로 초대해들이는 힘이고, 또한 그 안에 머물면서 이야기의 일부가 되도록 하는 힘이다.

이야기는 또한 어린이에게 “하나님만남”이 일어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이다. 어린이영성 교육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물론 ‘성경의 이야기(The Story)’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이야기이다.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야기되는 순간 청자들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여 그 이야기가 마치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처럼 재현하는 힘이 있다.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 이야기 안에 머물면서, 그 이야기가 처음 일어났을 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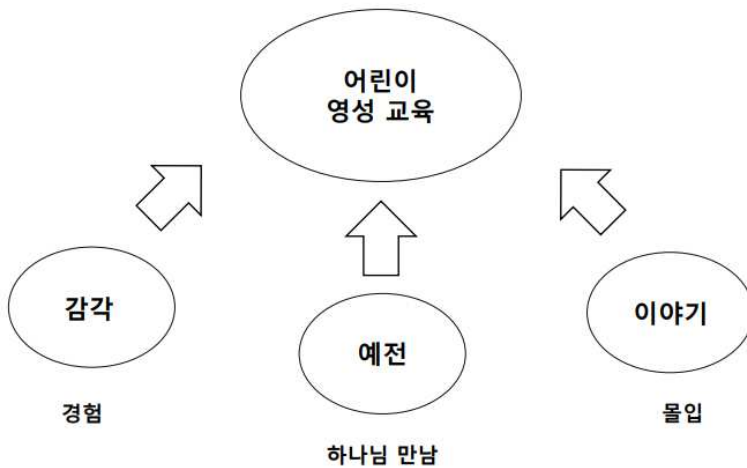
어린이들은 그들의 발달적 특성상 성인들처럼 하나님에 대해 깊이 있는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야기는 어린이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바돌로메와 고헨(Bartholomew & Goheen, 2004, 22)은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로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신다”고 했다. 어린이들이야말로 이야기 속에서 그의 백성에게 자신을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이야기 안에 초월적 하나님이 담겨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야기야말로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그릇이기 때문이다. 크로산(Crossan, 1975, 53)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을 담아낼 수 있는 최고의 그릇은 이야기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이야기 없이 초월적 존재를 경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심지어 이야기 없는 세계조차도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명제적 문장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쾌하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게 하지는 못한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리게 한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명제적 문장을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어떻게 사랑이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없지만, 탕자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이 왜 사랑의 하나님인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어린이영성교육이 초월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 감탄과 경이의 경험을 갖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교육이라면 그것은 그 무엇보다 ‘이야기’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야기는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경험이 일어나는 자리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야기는 우리를 그 세계 안으로 초대하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그 이야기를 경험하도록 한다. 그 경험의 과정에서 어린이들의 오감이 작동하고 무엇보다 감성이 터치된다(Ford & Wong, 2004, 313).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울고, 웃고, 분노하거나 슬퍼한다.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치유와 회복과 해방이 경험된다. 이야기는 명제적 설명으로 진리주장을 하는 담화의 형태가 아니라, 감각과 감정을 터치하고, 그것이 나의 이야기인 것 같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방법으로 어린이에게 풍성한 경험을 선사한다.

위에서 우리는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는 모두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됨을 살펴보았다. 감각은 일차적으로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통로이지만 하나님만남과 몰입에도 영향을 미치고, 예전은 ‘하나님만남’에 초점을 두지만 동시에 경험과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핵심적 통로가 된다. 이야기는 ‘몰입’을 불러일으키지만 하나님만남과 경험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결정적인 통로가 된다.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셋은 모두 각각의 강조점이 있으면서 동시에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모든 방향에 기여하는 통로가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 어린이 영성교육

V. 감각, 예전, 이야기의 만남

감각, 예전 이야기는 모두 공통적으로 어린이영성이 추구하는 ‘경험’, ‘하나님만남’,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은 어린이영성교육에서 함께 만나 유기적으로 결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들은 따로 분리된 형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유기적으로 통합되면서 어린이영성교육이 지향하는 핵심적 힘인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을 배가시킬 수 있다. 먼저 이야기는 감각과 만날 수 있다. 성경의 이야기는 감각적 교구와 만나 어린이의 몰입을 배가시키고, 이야기를 다양한 형태로 경험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예전도 감각과 만날 때 몸의 활동으로서의 예전의 본래적 기능이 더욱 심화될 수 있고, 하나님만남의 경험이 심화될 수 있다. 이야기가 예전과 만나면 예전의 상황 속에서 이야기가 경험될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전이 조성하는 “하나님앞에서(coram Deo)”라는 문맥에서 이야기가 경험됨에 따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경험되고, 또

한 그 이야기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만날 수 있게 된다.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는 어린이영성교육에서 유기적으로 함께 만나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게하고, 그것을 통해 어린이영성교육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몬테소리학파의 어린이영성교육 모델들에서 이 셋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통합되고 있는 현상은 우연이 아니다. 스투어트의 “팔로잉 지저스(Following Jesus)”, 베리만의 “가들리 플레이(Godly Play)” 그리고 양금희의 “센싱더스토리(Sensing The Story)”는 모두 성경 이야기를 감각적 교구로 제시하고 또한 전체를 예전적 과정으로 진행한다라는 공통점을 갖는데, 이것은 이 셋이 어린이영성교육에서 실제로 함께 결합되고 통합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팔로잉지저스(Following Jesus)”의 경우 스투어트에 의해 개발된 어린이영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카발레티의 선한목사카테키시스 이후 몬테소리학파들에게 공통되고 있는 ‘감각적 교구로 성경이야기 제시하기’의 형태를 취한다((Stewart, 2000; Cavalletti, 1992). 개발자 스투어트(2000, 3)는 이 프로그램을 “3-8세 어린이들이 성경 이야기를 예배적 환경 속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개발했다”고 하였다. 즉 그녀는 이 모델이 ‘예전’에 초점을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기획을 했고, 따라서 이것에 “어린이 예배센터(Children’s worship center)”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였다. 이 모델에서 주목할 것은 이것이 특수한 예배환경, 즉 “다감각적(multisensorial) 예배환경”에서 시행된다는 것이다. 즉 성경이야기교구들의 배치와 다감각적 요소들로 예배환경 자체를 특별하게 조성하고 함으로써, 예전과 감각이 뗄 수 없이 서로 결합한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팔로잉지저스는 이미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일생을 34개의 이야기로 제시하는데, 나무로 된 감각적 교구나 부직포로 구성된 교구를 사용하여 제시하게 된다. 스투어트(2000, 4)는 교구 뿐 만 아니라, 다감각적 예배환경과 감각적 교구가 모두 ‘성경이야기’를 어린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감각적으로 번역한 것(sensorial translation)’이라고 함으로써, 이야기와 감각의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들은 팔로잉지저스가 감각과 예전 그리고 성경이야기가 유기적으로 서로 통합되어 있는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스스로를 “몬테소리 4세대”라고 칭하고 있는 베리만의 “가들리플레이(Godly Play)”의 경우도 감각적 교구 및 그림을 중심으로 성경이야기를 제시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베리만(2011, 144)은 ‘들어오기’, ‘성경이야기에 참여하기’, ‘성찬 나누기’ 및 ‘떠나기’라는 예전적 구조에 따라 가들리플레이의 ‘시간적 가르침’이 진행되고, 그 중심에는 예전적 흐름이 있음을 밝힌다. 그(135)는 또한 가들리플레이가 진행되는 공간을 성경이야기 전체가 펼쳐지는 감각적 공간으로 만들고, 이 공간 자체도 가르치는 통로가 된다고 말한다. 가들리플레이의

공간 안에는 친구약 성경이야기 교구들이 절기에 따라서 다르게 배치된다. 어린이들이 가들리플레이 공간 안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감각적으로 번역된 성경책 안으로 들어오게 되며,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각적인 경험이 된다. 이와 같은 가들리플레이의 환경과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감각, 예전, 성경이야기가 함께 결합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서로 의존하는 관계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양금희(2014, 322이하)에 의해 2012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새로운 시리즈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는 “센싱더스토리(Sensing The Story)”도 몬테소리학파들에 의해 공유되는 감각적 교구와 성경이야기 그리고 예전적 프로세스를 핵심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미 이 프로그램의 이름 ‘센싱 더 스토리’로부터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성경이야기를 감각적으로 경험하기를 추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센싱더스토리는 어린이를 영적존재로 이해하기에 그들의 영성을 형성하는 형성적 모델을 표방하며, 성경의 이야기와 감각적 교구들을 활용할 뿐 만 아니라, 예전적 인식론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방향을 추구한다(양금희, 2014, 322이하). 이 프로그램도 이야기와 감각이 결합되어 감각적 교구로 성경의 이야기가 표현되고, 예전적 순서들이 감각적 활동과 서로 결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성경이야기를 심화하는 경험으로서 “다감각적(multisensory) 활동”이 추가로 강조되는 것이 눈에 띈다.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가 어린이영성교육에서 유기적으로 서로 만나고 결합되는 이 같은 예들은 그것들이 어린이영성교육이 추구하는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준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린이영성교육이 정보적 모델이 아닌 형성적 모델을 추구하는 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묻는 한, 하나님에 관하여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만남에 초점을 맞추는 한, 어린이가 몰입하는 영성의 순간을 중시하는 한,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는 필요불가결의 것들이고, 또한 이것들의 유기적 만남과 결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VI. 나가는 말

영성이란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인간존재의 핵(integral part)이다. 따라서 어린이의 영성을 형성하는 교육은 어린이의 존재 자체를 형성하는 ‘형성적’ 모델이어야 하지, 단순히 성경적 지식이나 윤리적 행동을 습득하는 부분적인 것을 통해 이를 수 있는 교육이 아니다. 어린이 영성교육이 고전적인 정보적(informational) 모델, 혹은 지식중심의 ‘학교식’ 모델에 대한

대안의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먼저 어린이영성 및 어린이영성교육에 대한 고찰을 통해 ‘경험’,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이야말로 형성적 모델의 핵심적 지향점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그 같은 지향점들이 구현되고 수렴될 수 있는 구체적 통로들로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의 형성적 힘을 탐색하였다.

위의 고찰을 통해 우리는 감각과 예전 그리고 이야기는 모두 초점의 차이는 있지만 경험과 하나님만남 그리고 몰입이 일어나는 핵심적 통로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어린이영성교육의 실천에서도 이들이 모두 유기적으로 서로 결합되고 연결되고 있는 현상 또한 발견하였다.

이것을 통해 본고는 어린이영성교육 안에서 어린이 이해로부터 교육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핵심가치와 방향성이 수미일관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들이 수미일관하게 추구하는 방향,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보다는 ‘무엇을 경험하게 할 것인가’를 ‘가르침’보다는 ‘예전’을, ‘설명’보다는 ‘이야기’를, ‘추상적’ 지식보다는 ‘감각적’ 경험을 중시하는 방향성은 단지 어린이영성교육에게만이 아니라, 어린이의 존재 자체에 관심을 갖고, 그들이 전인적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실천해야 할 기독교아동교육의 방향성이라 생각된다.

또한 본고는 한국교회의 교회학교가 어린이영성교육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 한다면, 어린이 영성교육이 중시하는 감각, 예전, 그리고 이야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참 고 문 헌

- 양금희 (2010). 어린이 영성(Children's Spirituality) 연구의 어린이영성 이해와 어린이영성교육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38, 457-480.
- [Yang, K. H. (2010). The Understanding of Children's Spirituality and Christian Spiritual Education of "Children's Spirituality" Research.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38, 457-480.]
- 양금희 (2014). *어린이 영성교육*. 서울: 센싱터스토리.
- [Yang, K. H. (2014). *Children's Spiritual Education*. Seoul: Sensing The Story.]
- 유선희 (2017). *어린이를 위한 영성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Yoo, S. H. (2014). *Spiritual Education for Children*. Seoul: PUTS Press.]
- Bartholomew, C. G. & M. W. Goheen (2004). *The drama of Scripture: Finding our place in the biblical story*. Grand Rapids: Baker.
- Beckwith, I. (2009). *Formational Children's Ministry: Shepherding Children Using Story, Ritual, and Relationship*. Grand Rapids: Baker Books.
- Berryman, J. (2011). *가들리 플레이 어린이 영성교육*. 양금희, 김은주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원저 1991 출판).
- Cavalletti, S. (1992). *The Religious Potential of the Child: Experiencing Scripture and Liturgy with Young Children*. trans. Patricia Coulter and Julie Coulter, Chicago: Catechesis of the Good Shepherd Publications.
- Coles, R. (1992). *The Spiritual Life of Children*. London: Harper Collins.
- Csikszentmihalyi, M. (1975) *Beyond Boredom and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uneo, T. (2016). *Ritual Knowledge, Rituaized Faith: Essays on the Philosophy of Litur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amasio, A. (1994). *Descartes' Error, Emotion, Reason, and the Human Brain*. USA: Putnam's Sons.
- Ford, V., & Esther W. (2004). Narrative and Moral Education of the Christian Child, *Children's Spirituality*. Eugene, OR: Cascade Books.
- Goldman, R. (1964)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 Hay, D. & R. Nye (2006). *The Spirit of the Child*. Revised Edition. Philadelphia: Harper Collins.
- Huizinga, J. (1956). *Homo Ludens, Vom Ursprung der Kultur im Spiel*. Rowohlt.
- McGrath, A. (1999).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Malden, MA: Blackwall.
- Montessori, M. (1996). *Grundlagen meiner Paedagogik*. Heidelberg: Quelle und Meyer.
- Montessori, M. (1971). *Das kreative Kind*. Freiburg: Herder.
- Murphy, D. D. (2004). *Teaching that transforms. Worship as the Heart of Christian Education*. Grand Rapids: Brazos Press.
- O'Leary, D. & M. Beauregard (2009). *The Spiritual Brain*. New York: HarperCollins.
- Otto, R. (1979). *Das Heilige, Ueber das Irrationale in der Idee des Goettlichen und sein Verhaeltnis zum Rationalen*. Muenchen: C.H. Beck.
- Merleau-Ponty, M. (2019).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역. 서울: 문학과 지성사 (원저 1945 출판).
- Ratclif, D (2008). The Spirit of Children Past: A Century of Children's Spirituality Research. Holly Catterton Allen (Eds.)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ity: Christian Perspectives and Best Practices*, Eugene: Cascade Books, 21-42.
- Renz, C. (1998). "Christian education and the confirmation debate: Toward a theology of catechesi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41, 53-65.

- Robinson, E. (1986). *The Original Vision*. New York: Seabury Press.
- Roehlkepartain, E. C. (2004). Exploring Scientific and Theological Perspectives on Children's Spirituality. D. Ratcliff (Eds.) *Children's Spirituality*, Eugene OR: Cascade Books. 120-132.
- Roehlkepartain, E. C. et al. (2006). *The Handbook of spiritual Development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Thousand Oaks, CA: Sage.
- Shaw, S. M. (1999). *Storytelling in Religious Education*. Birmingham: Religious Education Press.
- Stewart, S. M. (2000). *Following Jesus More about Young Children and Worship*. Louisville Kentucky: Geneva Press.
- Yust, K. M. (2004). *Real Kids, Real Faith: Practices for Nurturing Children's Spiritual L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 Wolterstorff, N. (2016). Knowing God Liturgically. *Journal of Analytic Theology*, 4. 1-16.
- Westerhoff III, J. (1983).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원저 1976 출판)